'코닥 프로스퍼 S 시리즈'
신문시장에 적합한 '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오늘날 인쇄 미디어는 디지털과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인쇄사들은 인쇄부수와 인쇄 광고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문 구독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매력적인 동시에, 신문사의 건전한 이익을 위한 새로운 신문 비즈니스 모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코닥은 그에 대한 해답이 '코닥 프로스퍼 S시리즈 초고속 디지털 잉크젯 헤드' 에 있다고 말한다.

자료 제공 | 한국코닥

독일 Axel Springer 설치 모습

코닥 프로스퍼 S 시리즈 초고속 디지털 잉크젯 헤드는 신문시장을 바꾸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신문사의 윤전 시스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광고주들은 가변데이터를 활용해 ROI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캠페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코닥 아시아팀, 신문시장 트렌드 및 신기술 소개

코닥 아시아팀과 심천프레스그룹은 지난 6월 7일 '혁신, 변화, 공유와 성공'이라는 주제로 중국 심천에서 3일간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신문사, 광고주, 유통사업자 및 인쇄산업 전문가 14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코닥은 신문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와 가능한 기술과 솔루션으로 이뤄낸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했다. 고객이 직접 시연하는 시간과 주제별로 그룹을 나눠 토론하는 세션도 가졌다. 특히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코닥의 통합 프로스퍼 S 시리즈 디지털 신문 솔루션을 확인하는 세미나도 열었다. 독일의 Axel Springer와 중국의 규모가 큰 트랜잭셔널 Dong Guan Tian Yuan을 방문해 그들의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심천프레스그룹은 통합 프로스퍼 S 시리즈 기술을 신문에 적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례와 그들의 인쇄 시스템을 직접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했다. 그들은 세미나에서 소개된 기술, 솔루션 포트폴리오,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 신문 산업 트렌드, 고객사 직접 방문 및 시연 등이 모두 가치 있고 경쟁력 있는 시간이었다고 판단했다. 코닥 아시아팀 역시 지속적으로 신문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스퍼·스트림 기술, 품질·속도·비용 삼박자 갖춰

이번 세미나에서 코닥은 프로스퍼 S 시리즈 초고속 잉크젯 인쇄 시스템과 함께 통합 데이터 관리 워크플로를 소개했다. 코닥 프로스퍼 S20/30 임프린팅 시스템은 신문사 윤전인쇄 시스템의 생산속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코닥의 '프로스퍼'와 '스트림' 인쇄기술은 품질, 속도,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결합된 기술이다.

'스트림 기술'은 디지털의 유연성과 전통 인쇄 시스템의 속도, 품질, 비용효율적인 측면을 결합한 것으로 오프셋 수준의 인쇄품질을 구현한다. 인쇄사들은 별도의 인쇄 장비 추가 없이 오프셋 기기에서 가변 데이터 인쇄(VDP)가 가능하다.

코닥 프로스퍼 S20/30는 수용성의 나노 피그먼트 잉크를 사용하며, 임프린팅 폭은 신문인쇄시 10.6cm 폭에 각각 분당 600m와 915m의 속도로 인쇄

Kodak
Stream Inkjet Technology

가 가능하다. 인쇄 해상도는 600×300dpi, 600×200dpi다. 코닥 스트림 임프린팅 시스템의 모듈 디자인은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워크플로에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고객들은 보유하고 있는 윤전, 매엽 오프셋인쇄기 및 마감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디지털 인쇄 비즈니스를 추가해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트랜잭셔널 인쇄, 물류관련 서류·의약품 바코드 인쇄, 트랜스프로모, 포장 및 신문 인쇄에서 이용되고 있다. 속도와 품질 또한 향상됐다. 코닥 프로스퍼 S-시리즈 제품은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적에 400대 이상 설치됐다.

다양한 장점 가진 코닥 통합 디지털 신문인쇄 솔루션

속도: 코닥 프로스퍼 S20과 S30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으로 신문사의 윤전인쇄기에 통합해 기존의 인쇄 속도로 가변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의 고품질 신문들이 인쇄되고 있다.

품질: 오프셋 인쇄와 비견할 만큼 인쇄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고속생산 하에서, 바코드 인식률이 99% A와 B등급이다.

신뢰성: 잉크젯 시스템은 압력 잉크 공급 시스템으로 연속적인 잉크젯 기술을 사용한다. 노즐에서 종이까지 거리가 3~6mm다. 신문용지의 습기, 굴곡, 변형 및 침식으로 인한 막힘 또는 새는 것 없이 향상된 기술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낮은 인쇄 비용: 낮은 잉크 비용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친환경 소모품: 친환경적인 수용성 잉크를 사용해 친환경 인쇄 및 안전한 인쇄가 가능하다. 잉크는 중국의 환경 보호 기준인 HJ567 검사를 통과했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과 독일에서의 성공사례

중국: 심천 인쇄그룹(http://www.iprint.cc/)은 10가지 신문, 5개 정기 간행물, 7개 웹사이트와 1개의 발행사를 보유한 중국에서 가장 큰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이다. 2백만명 이상의 독자들이 이 회사의 신문을 매일 구독한다. 연간 광고수익은 30억 위엔 이상이다.

2012년 코닥 S20 임프린트 잉크젯 시스템을 3대 구매해 GOSS N75/N90 장비에 설치했다. 2달의 시험 인쇄 후, 바코드 인쇄 품질을 테스트했다. 시험 인쇄에서의 뛰어난 성과물로 회사는 Jing Bao Reader Lucky Draw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행운 추첨 번호는 S20으로 인쇄했다. 심천인쇄그룹의 한 관계자는 "우리 광고주는 보다 더 효율적인 타깃 캠페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다. 우리가 바코드를 인쇄하지 않았을 때, 독자들은 왜 바코드가 없는지 문의전화를 할 정도였다. 코닥 솔루션은 매우 잘 운영됐고, 우리는 곧 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독일: Axel Springer AG(http://www.axelspringer.de)는 유럽의 가장 큰 미디어 회사 중 하나로 230개 이상의 신문 및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Bild도 그 중 하나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쇄부수를 보유한 신문 중 하나다.

2011년 9월, 코닥 프로스퍼 S30 임프린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던 만로랜드 COLORMAN 신문인쇄용 윤전기에 통합해 Bild의 가변데이터 인쇄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코닥 S20 시스템으로 인쇄한 후 Bild의 인쇄부수는 10~30% 증가했고 광고수익은 연간 평균 15% 증가했다.

Axel Springer에는 만로랜드 윤전 시스템에 통합돼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포함해 9개의 Springer 인쇄사에서 총 23개의 통합 시스템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베를린에 위치한 미디어 본부에서는 올해까지 모든 신문인쇄 시스템에 총 33개의 잉크젯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코닥 프로스퍼S 시리즈를 활용해 제작한 각종 신문